

2010년 1월 선 모의고사 6차

www.gosispa.com // www.sunedu9.com

제공 : 유 두선 선생님

1. 다음을 참고 할 때 반의어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반의어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상보 반의어는 남자, 여자 처럼 어떤 영역을 양분하는 관계를 이루므로,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 등급 반의어는 크다 작다 처럼 두 단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중간단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좀더’와 같은 비교표현과 어울린다. 관계 반의어는 ‘남편’과 ‘아내’, ‘주다’와 ‘받다’처럼 두 단어가 의미의 대칭을 이루고 있으므로, ‘x는 y의 남편=y는 x의 아내’ 같은 것이 성립한다.

- ① 위쪽의 반의어가 아래쪽이라면 상보 반의어이다.
- ② 허구의 반의어가 진실이면 관계 반의어이다.
- ③ 출발하다의 반의어가 정지하다라면 등급 반의어이다.
- ④ 지키다의 반의어가 어기다 이면 상보 반의어이다.

2.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말이 ㉠에 가장 가까운 것은?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다. 즉, 청유문은 청유형 어미 ‘-자’, ‘-(으)십시오’ 등이 붙는 서술어의 행동을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하도록 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간혹 청자만 행하기를 바라거나 ㉠화자만 행하려는 행동을 나타낼 때에도 쓰인다.

- ① (반장이 떠드는 친구들에게) 조용히 좀 하자.
- ② (엄마가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 자, 이리 와서 약 먹자.
- ③ (다툼 친구에게 화해를 청하면서) 오늘 영화나 같이 보러 가자.
- ④ (식사를 먼저 마친 사람들이 귀찮게 말을 걸 때) 밥 좀 먹읍시다.

3. 다음 밑줄친 부분의 표기가 바른 것은?

- ① 성철이는 정말 미쁜 아이다.
- ② 목욕물을 좀 덥혀 놓아라.
- ③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 ④ 벽을 헐고 가게를 들이다.

4. 다음 중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 ① 서울역 [서울력] ② 절약 [절략]
- ③ 솔잎 [솔립] ④ 촬영 [좌령]

5. 우리나라 유, 무형 문화재명을 로마자로 옮길 때 바르게 된 것은?

- ① 삼국유사 Samgukyusa
- ② 강강수월래 Ganggangsueolnae
- ③ 옥천교 Okcheon-gyo
- ④ 은율 탈춤 Eunyul talchum

6. 다음 중 밑줄친 용언 중에서 어미 활용 양상이 다른 것은?

- ① 가파른 언덕을 단숨에 올라갔다.
- ② 푸른 하늘을 날아보자.
- ③ 연애하는 사람은 얼굴도 예뻐진다.
- ④ 날씨가 추우니 나오지 말아라.

7. 다음 중, 문장 성분의 호응이 자연스러운 것은?

- ① 사회 구성원들은 협동 정신과 희생 정신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② 제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용기를 베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③ 오늘은 날씨가 점차 흐려지다가 오후에 천둥과 번개가 치겠습니다.
- ④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던 나비와 꽃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보이지 않았다.

8. (가)는 신간을 소개하는 글의 초고이다. 이를 고쳐 쓰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한 것을 (나)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가) 거울 앞에 앉아 몇 시간이고 화장에 공을 들이는 여성은 말할 것도 없고 평범한 남성들조차도 화장품 몇 개는 갖고 있기 마련이다. (㉠) 그 때문에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많다. 이 책은 현존하는 2000여가지의 화장품 성분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누구라도 쉽게 그 유해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게 했다. ㉔그런데 회사들의 기만적인 광고 전략에 대해서도 개개인이 밝히고 있어 하루라도 화장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책이다. 예뻐지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엄청난 이윤을 보장하는 거대한 화장품 시장의 비밀을 벗겨보는 재미가 있다.

(나)

㉕에는

- ‘그렇지만 화장품 종류가 너무 많이 선택하기 쉽지 않다’를 넣는다. - ㉑
- ‘하지만 화장품에 대해 잘 알고 쓰는 사람들은 그리 많이 않다’를 넣는다. - ㉒
- ‘그리고 화장품을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를 넣는다. - ㉓

㉖은

- ‘그런데 화장품 회사들의 기만적인 광고 전략에 대해서는 낱낱이 밝히고 있어’로 고친다 - ㉑
- ‘그뿐만 아니라 화장품 회사들의 기만적인 광고 전략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히고 있다.’로 고친다 - ㉒
- ‘그렇지 않아도 화장품 회사들의 기만적인 광고 전략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고 있어’로 고친다. - ㉓

① ㉑, ㉒

② ㉒, ㉓

③ ㉒, ㉓

④ ㉑, ㉒

9.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뱀꾸기가
울음 울어
때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쁜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뱀꾸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체의 뱀꾸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뱀꾸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뱀꾸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빗길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 송수권, 지리산 뱀꾸새

① 1연에는 화자가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노력이 나타난다.

② 2연의 ‘실체의 뱀꾸새’는 ‘여러 마리의 뱀꾸새’와 상반되는 의미를 형성한다.

③ 2연~4연의 첫 행들은 각 연의 시적 공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④ 3연~4연에서 ‘산봉우리’, ‘강’, ‘남해’, ‘섬’이 잇달아 연결되면서 변화와 생성의 세계를 보여 준다.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바탕 설왕설래를 거쳐 방을 재편성하는 작업은 일단락되었다. 코를 안 고는 편에서는 송죽실을 사용하기로 결정이 났다. 그 순간부터 송죽실 사람들은 비코파로, 매향실 사람들은 코파로 각각 불리기 시작했다.

열한 명이나 되는 비코파가 방 하나에 몰린다는 건 불공평한 처사라는 주장도 없지 않았으나 어쩔 도리 없는 노릇이었다. 비좁게 지내는 대신 그들 한테는 소음 공해 없이 편히 잘 수 있다는 이점과 함께 자랑스럽게도 자기는 비코파에 속해 있다는 우월감이 한 가마씩 배급되었다. 코파가 시무룩해 있는 반면에 비코파는 흠결없는 완벽한 인간으로서 적격 판정이라도 받은 것처럼 활기에 넘치는 모습들이었다. 마치 코를 골고 안 고는 그 차이로 문명인과 야만인을 분별하는 기준을 삼는 그런 분위기였다. <중략>

그때까지 속수무책이려니 하고 거의 체념하다시피 했던 국문과의 뇌리를 기막힌 계교 하나가 파득 스쳐 가는 순간이었다.

비코파들 틈서리로 슬그머니 비집고 들어가서 잠을 청해 보는 거다!

국문과는 몸뚱이를 발딱 일으켰다. 그는 침침한 불빛 속에서 민첩하게 움직였다. 놓치지 않겠다고 양탈하는 침대란 نوم으로부터 그는 우격다짐으로 담요와 매트리스를 뺏어냈다. 그것들을 둘둘 말아서 가슴에 안고 그는 곧장 송죽실로 향했다.

아, 이럴 수가!

송죽실로 들어서는 순간 국문과는 저도 모르게 약학과의 말투를 흉내 내고 말았다.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코파만 모여서 자는 방이었다. 그런데 그 방안 여기저기서 코 고는 소리들이 동전하고 있질 않은가.

하도 믿어지지 않아서 국문과는 침대마다 찾아다니며 얼굴 가까이 귀를 대고 낱알이 확인해 보았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과반수의 비코파가 드르렁드르렁 신나게 코를 골고 있었다. 가장 혹독하게 수학교육과를 추구하던 신방과하고 경영학과도, 행여 그들에게 뒤질세라 숙소의 재편성을 주장하던 물리학과도, 과음한 날만 코를 곤다던 약학과도 모두 다 예외는 아니었다. 너나없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코파였다. 명실상부한 비코파는 영문과 한 명 정도에 불과했다.

-윤홍길, 코파와 비코파

1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과거 회상을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③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④ 사건을 관찰한 시간과 서술하는 시간이 일치하고 있다.

11. 다음을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홍길의 소설 ‘코파와 비코파’에는 당시 현실에 대한 풍자가 담겨 있다. 이 작품에서는 입시 체점을 위해 소집된 16명의 신설 지방대학 교수들이 4박 5일 동안 연금 생활을 하면서 보여주는 갖가지 행태를 다루고 있다.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소위 ‘코파’를 대하는 태도와 국문과 김 교수에 의해 밝혀지는 ‘비코파’의 진실은 이 작품에서 풍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 ① 코를 골고 안 고는 차이로 문명인과 야만인을 분별

하는 ‘비코파’의 모습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부재했던 당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 ② 작가는 ‘비코파’임을 자처하는 대학 교수들의 행태를 통해 자신의 허물은 모른 채 남의 허물만을 문제삼는 지식인들의 문제점을 풍자하고자 한 것 같아.
- ③ ‘코파’나 ‘비코파’나 다를 바 없었다는 작품의 결말은 개인이 지니는 특성에 근거하여 인간을 등급화하는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을 드러내는 것 같아.
- ④ 이 작품은 ‘코파’와 ‘비코파’가 서로 혈투는 상황에서 그때그때의 정세에 따라 행동을 달리하는 ‘국문과’의 모습을 통해 지식인들의 기회주의적 면모를 비판하고자 한 것 같아.

12. (가)와 (나)는 유사한 구조를 지닌 작품이다. 두 작품을 대비할 때, (나)가 지닌 두드러진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구지가

(나)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

남의 아내 앓은 죄 그 얼마나 큰가?

네 만약 어기어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이리.

-해가

- ① ‘거북’이 무능한 존재로 그려져 있다.
- ② ‘거북’에게 요구하는 바가 구체적이다.
- ③ ‘거북’과 화자의 관계가 전도되어 있다.
- ④ ‘거북’의 반응이 상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13. ㉠에서 말하는 ‘피탄만한 글’과 관계가 깊은 것은?

“아니야, 생각을 해 보라고. 날것째 오리알을 진흙으로 싸서 반 년씩이나 내버려 두면, 썩어 버리거나, 아니면 부화(孵化)해서 오리 새끼가 나와야 할 이치 아닌가 말야……. 그런데 썩지도 않고, 오리 새끼가 되지도 않고, 독자의 흥미를 지닌 피탄으로 화생(化生)한다는 거,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 허다한 값나가는 요리를 제쳐 두고, 내가 피탄

앞에 절을 하고 싶다는 연유가 바로 이것일세.”
 “그럴싸한 얘기로구먼. 썩지도 않고, 오리 새끼도 되지 않는다……?”

“그저 썩지만 않는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 못할 풍미를 맛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지……. 남들은 나를 글줄이나 쓰는 사람으로 치부하지만, 붓 한자루로 살아 왔다면서, ㉠나는 한 번도 피땀만한 글을 써 본 적이 없다네. ‘망건을 십 년 뜨면 문리(文理)가 난다.’는 속담도 있는데, 글 하나 쓸 때마다 입시를 치르는 중학생마냥 긴장을 해야 하다니, 망발도 이만저만이지…….”

“초심불망(初心不忘)이라지 않아……. 늙어 죽도록 중학생일 수만 있다면 오죽 좋아 …….”

“그런 건 좋게 하는 말이고, 잘라 말해서, 피땀만 큼도 문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왕 글이라도 쓰려면, 하다못해 피땀 급수(級數)는 돼야겠는데…….”

-김소운, 피땀문답-

- ① 주제가 분명한 글
- ② 구성이 짜임새 있는 글
- ③ 현실이 충실히 반영된 글
- ④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난 글

14. 다음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글쓴이가 인용할 수 있는 인간관과 가장 가까운 것은?

그러면 현대인의 '도덕성 회복'은 가능한가? 우선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상업주의적 경제체제를 폐기하고 새로운 복지 사회의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사회의 체제를 바꾸는 일은 사람들의 재정립된 세계관을 전제로 한다. 한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그의 세계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적 회복'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세계관의 혁신적인 전환이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 또 나와 남의 관계에 대한 공동체적 인식을 요구한다. 즉,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생태주의적 세계관으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다

- ① 인간은 지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자연계를 지배할 수 있는 군주이다.
- ② 인간은 가장 연약한 갈대라지만, 생각하는 갈대인 한 가장 고귀한 존재이다.
- ③ 인간은 자연의 일부요, 생명체는 물론 비생명체와도 형이상학적으로는 구별되지 않고 연속되어 있는

존재이다.

- ④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상징적 언어를 사용할 줄 알고, 사물을 다루는 기술을 고안할 줄 알며, 미적 체험을 즐기는 존재이다.

15. (가)글과 (나)글을 참고할 때, ㉠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에릭 드렉슬러처럼 극도로 낙관적인 일부 나노론자들의 견해에 대해,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나노 과학의 미래상을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지금까지 새로운 과학기술이 선보일 때마다 항상 그래왔듯이 예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나노 기술이 가지는 획기적인 이로움 못지않게 그것이 지닐 수도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적절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나) 자연에는 이미 분자 기계가 존재하고 있다. 가령 생물체의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분자 기계이며 세포 안에서 유전 정보의 지시에 따라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을 생산하는 리보솜 역시 고성능의 분자 기계이다. 생명체는 이처럼 스스로 수많은 분자를 결합해 특정의 구조를 가진 분자 기계를 만들어 내는 이른바 자기 조립 능력을 갖고 있다. 요컨대 나노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조립의 능력을 이용해 나노 기계를 만드는 데 있다.

- ① 나노 기술을 응용하여 나노 로봇을 만들었을 때, 이들 로봇이 자기 증식을 한다면 지구는 나노 로봇으로 뒤덮일 거야.
- ② 스스로 분자 조립 능력을 가지게 된 나노 기계가 출현한다면 바이러스처럼 복제를 멈추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 ③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로봇이 나노 기술의 응용으로 개발됐을 경우, 로봇에 의해 인간이 통제되는 일도 일어날 거야.
- ④ 화성 탐사 로봇이 지구와의 통신이 두절되는 사태가 벌어지듯이, 수술용 미세전자 기계 시스템이 혈관 내에서 원격 조종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16. 다음 글의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영어만 잘 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에 온 나라가 야단법석이다. 배워서 나쁠 것 없고, 영어는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 하지만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글이다. 한글 더 떠 일본을 따라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주장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영어를 들여오는 일은 우리 개구리들을 돌보지 않은 채 황소개구리를 들여온 우를 또다시 범하는 것이다.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일은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우리 한글을 바로 세우는 일에도 소홀해서는 절대 안 된다. 황소개구리의 황소 울음 같은 소리에 익숙해져 청개구리의 소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17. 다음 보기의 밑줄친 단어와 유사한 조어법이 사용된 것은?

캘리포니아대의 한 교수가 3년에 걸친 연구 끝에 머리카락 절반 두께인 50마이크로미터 규모의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흥미롭게도 이 로봇의 구동 기관은 생쥐의 심장 근육이다. 그래서 근육과 로봇이 결합된다는 의미로 ㉠머슬봇이라 불린다.

- ①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을 드러내고 서 있는 -> 옅은 흙갈색 빛
- ② 제 깎냥으로는 제법 잘 했다고 생각했으나 결과는 실패였다. -> 지니고 있는 다소의 역량
- ③ 소소리바람 부는 날 언덕 위에 서서 님 계신곳 바라

- ① 남은 안건들을 一括해서 처리해야 한다.
- ② 새로 지은 건물을 賃貸해서 가게를 차렸다.
- ③ 여권을 更新하기 위해서 외무부 여권과에 들렀다.
- ④ 그것은 추진과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再考해야 한다.